

넷플릭스 영화 줄줄이 망했는데... '20세기 소녀' 뻘한 힘

올 한해 유일한 넷플릭스 '영화 흥행작' 첫사랑 추억 끄집어내... 세계 2위 입소문

김유정 주연 '20세기 소녀'가 넷플릭스 영화의 자존심을 세웠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상륙 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지만, 유독 영화 흥행과 거리가 멀었다. 송중기 주연 '승리호'(감독 조성호·2021)를 제외하면 관심 받은 작품은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지옥'(2021), '지금 우리 학교는'·'수리남'(2022) 등이 흥행해 전 세계에 K-콘텐츠 열풍이 분 것과 비교됐다. 장르물 대세 속 20세기 소녀는 뻘한 첫사랑 이야기로 전 세계 시청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로맨스 영화의 클릭세가 가파르지만, 1990년대를 배경으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성을 입혔다.

10월 30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론티에 따르면, 전날 20세기 소녀는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5위를 차지했다. 26일 세계 2위에 오른 후 세 계단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등

총 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을 비롯해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말레이시아,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살바도르, 태국 등 10개국에서는 2위에 올랐다.

이 영화는 1999년 사랑보다 우정이 중요한 17세 소녀 '나보라'(김유정)가 절친 '김연두'(노윤서)의 첫사랑을 이뤄 주기 위해 사랑의 큐피트를 자처하는 이야기다. 보라가 연두의 짝사랑 상대인 '백현진'(박정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알려준다'는 설정 외에 크게 새로운 점은 없다. 현진 절친 '풍운호'(변우석)와 가까워지면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점 역시 로맨스 영화의 정석을 보여줬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2012~2015)와 '스물다섯 스물하나'(2022)에서 보여준 90년대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비디오테이프와 캠코더, 삐삐, 공중전화, PC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보라가 등교길 버스에서 우연히 현진을 만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의 무릎에 앉게 되는 장면부터 식상하지만 설렘을 줬다. 현진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리서치기관 상담직원인 척 전화하고, 아픈 척 양호실에 가고, 방송반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 등도 학창시절 추억을 끄집어냈다. 그 당시를 경험한 이들에게 익숙하지만, 1990~2000년대생들에게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김유정이 영화의 중심을 잘 잡았다. 방우리 감독은 실제 경험을 녹여 시나리오를 썼는데, 김유정을 염두에 뒀다고 할 만큼 첫사랑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졌다. 아역 시절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줄곧 로맨스물을 해왔기에 이질감이 없었고,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조금 낯간지럽고 오글거리는 장면도 '피식' 웃음 짓게 만들곤 했다. 김유정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만큼 변우석, 박정우의 매력도 많이 두드러지는 않았다. 변우석 연기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김유정의 매력만으로도 관객들을 끌어당기기 충분했다. 결말 관련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후반부 반전과 환호주, 공명, 그룹 '워너원' 출신 오성우 등 성인연기자들의 특별출연으로 재미를 더했다.

올해 넷플릭스 영화는 줄줄이 흥행에 실패했다. '모델센스'부터 '야차' '카터' '서울대 작전'까지 혹평과 함께 외면을 받았다. 방 감독은 20세기 소녀가 장편 데뷔작인데, 로맨스 영화의 흥행 공식을 따르면서도 섬세한 연출력과 뛰어난 영상미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대만 청춘영화에서 볼 법한 푸른 색



감과 아날로그 감성이 돋보였다. 홍보 인터뷰에서 "추억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 클릭세를 벗어나기 힘들었다"면서도 "우리만의 색깔을 입혀 정면 승부하려고 했다. (클릭세가 아닌) 클래식으로 바꾼 점이 힘이 된다"고 하는 이유다.

패했다. '모델센스'부터 '야차' '카터' '서울대 작전'까지 혹평과 함께 외면을 받았다. 방 감독은 20세기 소녀가 장편 데뷔작인데, 로맨스 영화의 흥행 공식을 따르면서도 섬세한 연출력과 뛰어난 영상미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대만 청춘영화에서 볼 법한 푸른 색

방탄소년단 RM, 본격적인 솔로 활동 시작

제이홉·진 이어 팀 내 세 번째 본격적인 솔로 활동 병행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28·김남준)이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RM은 오는 25일 솔로 앨범을 낸다. RM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17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서 "연말에 바쁘게 여러가지 활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순차적인 군 입대와 맞물려 솔로 활동을 병행하기로 한 첩터 2에 접어든 이후 팀 내 세 번째 솔로 활동이다. 앞서 지난 7월 제이홉(28)이 첫 정규 '잭 인 더 박스'로 그룹 내 솔로 활동의 물꼬를 텄고, 입대를 앞둔 진(30·김진진)이 지난달 28일 첫 공식 솔로 싱글 '디 아스트로네프(The Astronaut)'를 발매하며 솔로 활동의 바통을 이어 받았다.

미술 애호가인 RM은 이미 올해 중순부터 미술 관련 인터뷰 등 솔로 행보를 보여왔다. 세계적 아트 페어 더 아트 바젤(The Art Basel) 팻캐스트에 출연하고 뉴욕타임스 등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예술에 눈을 뜨게 된 계기 등에 대해 전했다. 자신이 소장한 미술품을 보여줄 작은 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RM은 그간 믹스테이프 등을 통해 이미

솔로 작업을 활발히 해온 만큼 그의 음악적 활동도 기대된다.

RM은 밴드 '뫓'의 리더 겸 솔로 뮤지션 이이언, 기타리스트 은희영, 영국 팝 듀오 '훈네', K 팝 얼터너티브 그룹 '바밍타이거' 등과 작업했다.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서 바밍타이거 멤버들과 '색시 느낌'을 부르기도 했다.

특히 RM은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기 전 언더그라운드 힙합 크루 '대남협'(대남조선힙합협동조합)에 속해 있었다. 래퍼 슬리피가 그를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소개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활동이 기대된다.

아울러 IQ가 148로 알려진 RM은 팝 음악뿐만 아니라 남다른 지적 호기심과 감성을 겸비한 MZ세대 아이콘으로 통한다. 다독가로 알려진 RM이 읽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다. 아울러 미술 등 예술 전방위로 관심이 많고 음악 분야 역시 인디까지 아우르며 스펙트럼이 넓다. 그런 그는 케이팝 예능 채널 tvN이 올겨울 론칭하는 지식 교양 예능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사전 - 알쓸인잡'(연출 양정우·전혜림) MC로 나선다.

RM이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건 2015년 tvN '뇌섹시대 문제제기 남자'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RM은 아나운서 전현무, 배우 하석진·김지석, 밴드 '페퍼톤스' 멤버 이장원, 방송인 타일러 등과 함께 했으나 해외 활동 등 팀 스케줄이 많아지자 중간에 하차했다.

tvN은 "폭넓은 문화 장르를 아우르며 젊은 세대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해 온 RM은 평소 잡학사전 시리즈의 남다른 애정자다. 그가 '알쓸인잡'에 출연을 색다른 활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유재하·김현식...지난 1일 더 그리운 불멸의 뮤지션들

1일은 두 사람의 기일, 각각 35주기·32주기

유재하(1962~1987), 김현식(1958~1990)은 11월 첫날이면 더 그리운 불멸의 뮤지션들이다. 1일은 두 사람의 기일이다. 각각 35주기, 32주기를 맞았다.

유재하는 1987년 11월1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불과 25세였다. 김현식은 1990년 11월1일 간경화로 세상을 작별했다. 서른을 갓 넘긴 나이였다.

두 사람은 음악적 인연도 있다. 1986년 유재하는 김현식의 백밴드였던 '김현식과 봄여름가을겨울'의 건반주자를 잠시 지냈다. 그 때 멤버들이 쟁쟁했다. 듀오 '봄여름가을겨울' 멤버들이 김중진(기타)과 고(故) 전태관(드럼) 등도 함께 했다.

음유시인으로 통하는 유재하는 김현식과 봄여름가을겨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등의 밴드에서 키보드를 맡았다. 무엇보다 클래식 팝 앨범 1장으로 대중음악계에 한 획은 그는 싱어송라이터로 평가 받는다.

1987년 8월 내놓은 데뷔작이자 유작 '사랑하기 때문에'가 사후에 영향력과 가치를 인정 받았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우울한 편지' '지난날' '가리워진 길' '사랑하기 때문에' 등 수록곡 대부분이 인기를 끌었다. 클래식 음악 전공자로서 화성학, 대위법 등을 배운 그는 한국형 팝 발라드의 문을 연 개척자로 불린다.

고인을 기리는 '유재하음악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자 유족이 음원 수익금 등으로 장학회를 설립, 신인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했다.

올해도 CJ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33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를 열기 위한 절차를 밟

고 있다. 그동안 조규찬, 고찬용, 유희열, 김연우, 강현민, 루시드폴, 이한철, 방시혁, 자화상(정지찬·나원주), 스윗소로우 등 300여명의 싱어송라이터를 배출했다.

1980년 1집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데뷔한 김현식은 걸출한 보컬리스트로 평가 받는다. 점차 나빠지는 건강 탓에 목소리 역시 점점 탁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매력이 됐다.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주류로 끌어올린 뮤지션으로 통한다. 정해진 형식이나 틀을 벗어난 '순수한 사랑'을 노래해 '사랑의 가격'으로도 불린다. 아픈 몸으로 인해 갈라지고 탁한 생소리가 고독과 상처받은 이들에게 카타르시스 효과를 줬다는 평도 있다.

'뉘트리' '사랑했어요'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등의 대표곡을 남겼다. 1986년 발표한 3집에는 유재하가 만든 '가리워진 길'이 실려있다. 김현식 사후에 발표된 정규 6집은 20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음악적으로 계속 조명되고 있다. 재작년 김현식 30주기 리메이크 앨범 '추억 만들기' 음원이 순차적으로 발표된 데 이어, 작년 8월 컴필레이션 앨범이 공개됐다. 또 지난 몇년 간 김현식의 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사랑했어요'가 공연됐다.

힙합그룹 '에픽하이'는 2004년 발표한 정규 2집 '하이 소사이어티'에 유재하·김현식에게 헌정한 '11월1일'을 실었다. 세 멤버는 전설이 된 두 가수를 이렇게 그리워했다.

"피아노와 통기타 멜로디로 꿈을 채웠고 / 현실보다 그사람은 음악을 사랑했었죠 / 오(Oh) 그 지난날 난 다른 길에 발 딛고 / 무대 위에서 내게 보내던 분홍빛깔 미소 아직도 /



그때가 그림자 그댄 사랑과 열정이 독이 될 줄 몰랐으니깐 / 괴리감은 천재성의 그림자"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가 오는 5일까지 국가예도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올해 일부 김현식 추모 행사가 취소됐다. 김장훈은 이날 가수 권인하, 김중서와 함께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제3회 추억콘서트'를 열고 김현식을 추모하려고 했으나, 전날 취소됐다. 김장훈은 "너무 황망하고 생각이 많은 생각이 많은 날이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 다음을 기억함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 JTBC '히든싱어7'은 오는 4일 오후 8시50분 예정대로 김현식 편을 내보낸다. JTBC 측은 김현식에 대해 "수많은 명곡으로 국민들의 감성을 위로해 온 영원한 사랑의 가격"이라고 소개했다.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 3일→9일 연기

네이버 NOW 통한 사전녹화 중계 형식으로 변경

'제 43회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연기됐다.

1일 청룡영화상 사무국에 따르면, 오늘 3일 예정됐던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 네이버 NOW를 통한 사전녹화 중계 형식으로 변경됐다.

청룡영화상 측은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본 행사는 청룡영화상 수상자의 수상을 기념하며 핸드 프린팅을 남기는 행사다. 행사에

는 지난해 청룡영화상 수상자 배우 설경구(남우주연상), 문소리(여우주연상), 허준호(남우조연상), 김선영(여우조연상), 정재광(신인남우상), 공승연(신인여우상) 등이 참석한다. 제 43회 청룡영화제는 오는 25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지난달 29일 헬리콥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일대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숨지는 등 총 303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국가예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뉴스

'슈렉' 제작진이 만든 영화 '프린스 차밍' 스틸 컷 공개



'슈렉' 제작진이 아닌 차게 내놓은 신작 '프린스 차밍'(수입 히스토리필름, 배급 와이드윌리츠)이 2023년 개봉에 앞서 영화 스틸 컷 12종을 공개했다.

기존 동화의 원작을 비틀어 재해석한 '프린스 차밍'은 사악한 마녀의 저주로 세상의 모든 여자를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차밍 왕자가 여종의 마법을 풀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판타지 매

내년 개봉 앞서 영화 스틸 컷 12종

직버스터 애니메이션이다.

'슈렉' 시리즈에서 차밍 왕자는 슈렉에게 밀려 피오나 공주를 빼앗긴 마마보이 캐릭터였다. 그러나 당시 제작을 맡았던 프로듀서 존 H. 윌리엄스는 '프린스 차밍'에서 슈렉에 설욕이라도 하듯 차밍 왕자를 세상의 모든 공주들의 사랑을 받는 매력 만점 주인공으로 변신시켰다.

2023년 개봉 확정에 앞서 이번에 공개된 영화 스틸 컷에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한 프레임에 동시에 등장했다. 팝 가수 '에이브릴 라빈', '에슐리 티스데일', 'G.E.M'이 각각 공주의 목소리 연기뿐 아니라 주제곡까지 함께 노래한다. 여기에 주인공 차밍 왕자 역에 '엔칸토: 마법의 세계' 일머 빌더

라마, 신분을 숨기고 차밍 왕자의 모험 길을 안내하는 레노어 여에 데미 로바토, 여정에서 만난 반쪽 여인이가 도라체 역을 맡은 시아의 매력적인 노래까지 더해져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슈렉', '미니언즈', '아담스 패밀리', '장화 신은 고양이', '마이펫의 이중생활'의 실력과 애니메이터들이 대거 참여 화려한 CG를 선보인다. 각 캐릭터의 개성이 엮여오는 의상과 헤어스타일, 장신구는 물론 세밀한 표정까지 캐릭터들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통해 동화 속 판타지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줄 예정이다.

기존 동화를 비틀어 매력적으로 재탄생한 이야기에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목소리 출연과 주제곡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매직 판타지 애니메이션 '프린스 차밍'은 오는 2023년 1월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